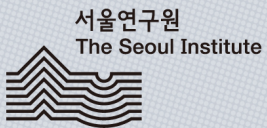


개미이웃

이유정



개미이웃

2012



■ 연구진 ■

연구책임 이 유 정 • 만들지 대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I. 개미이웃	3
1. 개미이웃이란	3
2. 연구목적	5
3. 연구내용	5
4. 연구방법	10
5. 기대효과	11
II. 종로구 인구나 주민구성	15
1. 수급대상자의 분류	15
2. 종로구 내 지역별 노인인구 분석	17
3. 종로구 내 주간 상주 인구	18
III.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실태	23
1. 운영현황과 실태	23
2. 한계와 문제점	28
3. 개미이웃을 활용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33
IV. 청운효자동의 개미이웃 운영방안	47
1. 운영을 위한 준비	47
2. 청운효자동 취약계층 현황	47
3. 지역 내 상가의 종류와 수	48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획	51



IV. 맺음말59

부 록65

표 목 차

〈표 2-1〉	수급대상자 분류	15
〈표 2-2〉	동별 수급자인구	16
〈표 2-3〉	홀몸 노인인구	17
〈표 3-1〉	종로구 자원봉사캠프 현황	25
〈표 4-1〉	기초생활수급자	47
〈표 4-2〉	기초생활비수급자	48
〈표 4-3〉	식·음료 관련 점포 수	49
〈표 4-4〉	주택수리, 설비 관련 점포 수	49
〈표 4-5〉	생활 관련 점포 수	49
〈표 4-6〉	서비스 관련 점포 수	50
〈표 4-7〉	기타 점포 수	50

I . 개미이웃

- 
1. 개미이웃이란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기대효과
- 

I

개미이웃

1. 개미이웃이란

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 하는데 무엇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고향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까. 성장기를 지나 서울에 이주한 사람은 때가 되면 가족과 기억을 찾아 자기 지역으로 향한다. 그러나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언제나 고향에서 지낸다.

정작 고향에 살면서 고향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내 고향이 아니니, 편의에 의한 공간으로 서울을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서울’이란 지역이 본래 지녔던 주민 간의 친화성, 밀접성이 점점 퇴색해가고 있다. 고향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삭막하고 각박하다는 서울에 대한 타지인들의 표현은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의 성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 살더라도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고 본의 아니게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 이웃이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이는 존재다. 서울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고 나지만, 그 안에도 마을이란 것이 형성되어 있으며, 나와 비슷한 이웃, 나와는 전혀 다른 이웃이 존재한다.

‘개미이웃’은 옆집 사람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요즘, 사회문제의 원인을 이웃 간의 무관심에 두고, 소단위 지역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구성원 간의 관계회복을 목표로 한다.

개미는 부지런히 협동해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크고 무거운 것은 함께 나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진다. 개미사회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수가 힘을 모아 체계적이고 넉넉한 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개미들이다.

우리 사회 역시 개인의 노력과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와 나라를 발전시키는 공통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대의(大義)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관심과 배려를 위한 두레, 품앗이 풍습이 사라졌다. 대신 정책과 사업이란 체계화된 복지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나 고달픈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돌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개미이웃’은 예전 우리가 작은 사회(마을)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던 삶의 방식을 되살리려 한다. 지나친 경쟁과 고도의 산업화로 인해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삶이 딱딱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요즘, 예전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좀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힘들고 불편하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으로 돌아 가야 한다. 잠깐 잊고 있었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회로의 회귀를 기대해 본다.

2. 연구목적

“개미이웃”은 ‘부지런히 열심히’라는 뜻도 있지만, ‘꾸준히 작은 부분까지 서로 돕고 지내자’는 의미도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인구의 활발한 유동성 때문에 이웃과 터놓고 지내기 어려워지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무언가 나누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 무관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각종 이해관계에 의해 서로 도움이 되는 이웃은 가까이하지만 생활환경이 다른 이웃은 반대편에 세우기도 한다. 불신과 경계로 인해 작은 지역 안에서의 이기심과 갈등이 팽배하다.

옵니버스 영화 ‘도교’에서 봉준호 감독은 사람들이 모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골목과 거리가 텅 비어 버린 모습을 연출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서만 생활한다. 무엇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집안에 갇혀있는 세상은 전쟁이나 질병보다 더 끔찍한 생존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웃과의 단절은 단지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가두다 보면, 결국 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 기대어 살아갈 때 다양한 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행복도 불행도 느낀다. 이웃 간의 역할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그 덕분에 함께 사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로 회복되었으면 한다.

먼저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지속적인 이웃돕기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사람은 누구나 다른 욕구를 지니며 살아간다. 다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이 가능한 작은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나 재단의 손이 닿지 않는 세세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에 대해 소단위 지역 복지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한 보다 친밀하고 현실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본다.

1) 사각지대에 대한 꼼꼼한 관심과 지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의 삶의 방식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와 재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과 봉사활동은 광범위한 영역과 대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세세한 요구를 들어주고 충족해 주기에 무리가 있다. 충분한 예산과 전문적인 지원정책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역시 놓치고 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식주, 의료서비스, 정부 지원물품으로 생활이 유지되지만 어떤 때는 쌀보다 만원이 당장 더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듯이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도 수반되어야 하나 금전적인 제한을 받다보니 점점 더 집안으로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그럴수록 이웃과 사회에서 소외된다. 지원되는 물품과 내용이 한정되어 지원을 받는 당사자는 물품 지원이 반갑지만은 않기도 하다. 그러나 금품 지원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큰 틀 아래 주변 이웃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불편한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른 이웃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이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지원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이웃이기 때문에 쉽게 어려운 사정을 들을 수 있고, 개인과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다수의 목소리는 듣는 과정도 복잡하고, 가장 큰 고통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가 만족하기 어렵다. 다만 개인과 개인, 이웃 대 이웃으로 고민을 나누고, 개인의 어려움을 여럿이 함께 돕는 일은 절차의 복잡함도, 여건의

어려움도 크지 않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2) 즐겁고 만족스러운 봉사활동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무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내용에 자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활동이지만 받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 모두 불편하면 지속하기 어렵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역할 매뉴얼과 다양한 활동내용을 제공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로 봉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봉사활동을 특별한 일이나 어려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봉사활동이 희생과 봉사가 아닌 즐겁고, 유익한 경험으로 자리 잡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여서 함께하는 활동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활동의 방식을 선택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참여가 되도록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 기존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본다.

3) 양방향의 봉사활동

누구나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지 못한다. 특히 노인들은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력에 의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이들의 이전 직업과 취미생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을 격려하고, 주변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사회 참여가 적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스스로 권태로운 생활에 회의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야 한다. 노인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자신감과 사회참여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봉사활동 참여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봉사활동자 역시 상대방에게서 배움을 얻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주민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려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며, 내 이웃이 잘 살고 행복해야 우리지역의 환경과 나의 생활도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해야 한다. 지역 범죄, 불신, 분쟁의 원인은 나와 이웃이 다르다는 데서 시작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모두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공유가치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

4) 자율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 기구

수혜자와 봉사활동자가 자유롭게 방문하여, 내용과 활동 방식을 선정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지원물품 보관, 활동내용 홍보, 공동작업장 등의 역할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혜자의 가장 큰 불만은 지원받는 물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중간기구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물품을 비치하고, 필요한 것을 수혜자가 직접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공받는 품목이 중복되어 지원물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낭비되는 지원품이 줄고 수혜자 역시 보다 큰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봉사활동자가 중간기구에서 원하는 활동내용을 선택하고 자원활동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봉사활동자가 선호하는 활동의 내용과 인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봉사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직접 봉사참여를 제안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중간기구는 수혜자와 봉사활동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이 되기도 하고, 지역 내 복지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수렴하는 마을 사랑방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수혜자와 봉사활동자 모두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방문하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소단위 지역 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기구의 역할을 고민하고, 지역단위 기구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5) 내 이웃을 돕는 작은 기구

이웃의 불편함이 나에게도 불편함으로 전해져야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단고 모른척했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만 내 주변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 옆집 아이가 나쁘다고 내 아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도 내 아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복지정책이 낡아서 누구나 고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사람을 한정된 기준 안에서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예외 사항과 다양한 모습을 위해 가장 최소한의 단위 안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더 자주, 많이 고민할 수 있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단위인 ‘법정동’별로 지원기구를 운영하여 잠재적인 수혜자를 발굴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발견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세

우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매년 잔인한 범죄와 고독사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변의 무관심’, ‘잡고 보니 이웃이었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 개인의 불행이 사회의 불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서로 의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작은 지역단위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쉽게 말을 건네고, 속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는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며, 이웃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경찰서를 통해 묻고, 문을 꼭꼭 닫고 살아갈수록 불안감은 고조된다. 예전처럼 골목을 공유하고 집안행사를 함께 즐기고, 옆집 아이의 하루 일과를 함께 지켜봐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작은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큰 테두리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안이 많아지며, 많은 이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의 주민구성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개발해서 좀 더 지역 친화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4. 연구방법

1) 수급자 방문조사

2) 봉사활동 단체, 개인 면담

3)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과 목적에 대한 조사

- 4) 운영 중인 자원봉사캠프 방문
- 5) 지역 내 상권분석
- 6)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기획하기

5. 기대효과

수급자의 대부분이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한다. 물품 지원이 고맙긴 하지만 본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이 필요한 이유가 개인의 취향에 맞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의 재능을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무력하고 폐쇄적인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수혜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봉사활동자와 수혜자가 모두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자와 수혜자의 역할로 주민 간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활용해 서로 돕고 지내는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현재 지적되는 단기·일회성 활동, 직능단체를 통한 중복참여, 목적성 활동, 특정연령층의 편중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봉사활동자를 확보하려면 특별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봉사활동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봉사활동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뿐만 아

니라 자신 역시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취미와 관련된 내용이고, 일상생활을 활용하여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자원활동가에 대한 교육과 활동자 모집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목적성 활동이 아닌 ‘자원’활동으로의 회귀를 기대한다. 자원봉사활동으로 복지지원이 가능하려면 활동가가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활동 결과로 인한 혜택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매일 버스 정류장과 시장에서 마주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웃으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 종로구 인구와 주민구성

- 
1. 수급대상자의 분류
 2. 종로구 내 지역별 노인인구 분석
 3. 종로구 내 주간 상주 인구 분석
- 

III

종로구 인구와 주민구성

1. 수급대상자 분류

종로구 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홀몸(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5개 유형으로 분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총 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표 2-1〉 수급대상자 분류

종로구 전체 인구	총계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179,362명	14,160명	6,009명	5명	7,097명	1,049명
전체인구대비	7.9%	3.4%	0.003%	4.0%	0.6%

출처 : 종로구 2011 통계연보 통계연도 : 2010년도(소수점 2자리 반올림, 소년소녀가장 소수점 4자리 반올림)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3,960명으로 종로구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

종로구 내 법정동 중 종로1,2,3,4가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45명으로 종로구 전체 수급자의 11.2%<부록표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별첨자료>에 달한다. 하지만 삼청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7명으로 종로구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표 2-2〉 동별 수급자인구

동명	인구	총수급자	종로구인구 대비		해당동별인구 대비	
청운효자동	15,892명	207명	0.12%		1.30%	
사직동	10,668명	94명	0.05%		0.88%	
삼청동	3,708명	37명	0.02%		1.00%	
부암동	11,648명	105명	0.06%		0.90%	
평창동	19,921명	109명	0.06%		0.55%	
무악동	8,754명	97명	0.05%		1.11%	
교남동	9,324명	179명	0.10%		1.92%	
가회동	5,857명	80명	0.04%		1.37%	
종로1,2,3,4가동	9,155명	445명	0.25%		4.86%	
종로5,6가동	6,640명	165명	0.09%		2.48%	
이화동	9,991명	183명	0.10%		1.83%	
혜화, 명륜3가동	20,217명	145명	0.08%		0.72%	
창신1동	8,664명	248명	0.14%		2.86%	
창신2동	12,365명	330명	0.18%		2.67%	
창신3동	8,790명	161명	0.09%		1.83%	
송인1동	8,216명	186명	0.10%		2.26%	
송인2동	9,554명	264명	0.15%		2.76%	
총계	179,362명	3,960명	2.21%			
			평균	0.13%	평균	1.84%

출처 : 종로구 2011 통계연보 통계연도 : 2010년도(소수점 3자리 반올림)

종로1,2,3,4가동은 쪽방촌이 밀집 형성돼 있고, 그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인 독거노인이다. 이 지역은 자치적으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자원봉사활동보다는 구와 자치동의 복지지원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삼청동과 가회동은 종로구 전체 대비 수급자인구가 적지만 해당 동 인구대비 비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상업화로 인해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주거지역이 상업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오랜 주거민들의 이주가 노인인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인구의 감소요인이라 판단되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종로구 내 지역별 노인인구 분석

〈표 2-3〉 홀몸 노인인구

동명	전체 인구	65세 이상	동인구 대비	구인구 대비	수급권자/저소득층	65세 이상 대비
청운효자동	15,892명	447명	2,8%	0,2%	62명	13,9%
사직동	10,668명	367명	3,4%	0,2%	109명	29,7%
삼청동	3,706명	153명	4,1%	0,1%	18명	11,8%
부암동	11,648명	426명	3,7%	0,2%	76명	17,8%
평창동	19,921명	452명	2,3%	0,3%	25명	5,5%
무악동	8,754명	224명	2,6%	0,1%	40명	17,9%
교남동	9,324명	358명	3,8%	0,2%	34명	9,5%
가회동	5,857명	200명	3,4%	0,1%	26명	13%
종로1,4가동	9,155명	666명	7,3%	0,4%	219명	32,9%
종로5,6가동	6,640명	287명	4,3%	0,2%	40명	13,9%
이화동	9,991명	262명	2,6%	0,1%	44명	16,8%
혜화동 (명륜3가동)	20,217명	528명	2,6%	0,3%	24명	4,5%
창신1동	8,664명	361명	4,2%	0,2%	89명	24,7%
창신2동	12,365명	350명	2,8%	0,2%	70명	20%
창신3동	8,790명	238명	2,7%	0,1%	31명	13%
송인1동	8,216명	227명	2,7%	0,1%	50명	22%
송인2동	9,554명	463명	4,8%	0,3%	103명	22,2%
총계	179,362명	6,009명	3,5%	0,2%	1,070명	17%

출처 : 종로구 2011 통계연보 통계연도 : 2010년도(소수점 2자리 반올림)

종로구 내 홀몸(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일반을 포함해 총 6,009명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은 1,070명이다.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1,2,3,4가동으로 종로구 전체 홀몸노인인구의 11%, 동 인구 중 7.3%를 차지한다.

종로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삼청동의 홀몸노인인구는 153명으로 종로구 전체에서 가장 적은 수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권자와 저소득노인의 비중은 11.8%로 인구에 비해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평창동은 노인인구에 비해 수급권자와 저소득노인의 비중은 적은 편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안정된 홀몸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로1,2,3,4가동은 쪽방촌 밀집지역으로 홀몸 노인 대부분이 쪽방촌 거주민이다. 이 지역은 자체적으로 쪽방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모두 고령인데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반해 평창동의 홀몸노인인구는 452명으로(종로1,2,3,4가동 666명) 종로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홀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지만 수급대상자 인구는 종로1,2,3,4가동의 1/10이다. 홀몸 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종로1,2,3,4가동과 평창동의 지원내용과 접근방식은 달라야 한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평창동은 기초생활과 관련된 지원보다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하지만 종로1,2,3,4가동은 노인극빈층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

이렇듯 지역별 인구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작은 단위지역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3. 종로구 내 주간 상주 인구

주기	상주인구	유입인구		
		계	통근	통학
2005년	152,073명	268,044명	229,819명	38,225명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	유출인구		
		계	통근	통학
251명	381,773명	38,344명	30,709명	7,635명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참조

2005년도 종로구 총 인구(주민등록상)가 173,861명인데 비해 주간에 종로구 내에 머무는 인구는 종로구 총 인구의 2배 이상인 381,773명이다. 종로구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인구가 실거주 인구보다 많은 셈이다. 종로구는 도심으로 주거기능보다 행정, 경제기능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통근인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통근 통학자가 하루 중 9시간 이상을 회사나 학교에서 보내고, 10시간가량을 주거지에서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종로구에서 하루 중 19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전체 인구는 381,773명이다. 사람들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관심과 익숙함을 갖게 된다. 도시인의 삶은 기초생활공간과 사회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두 공간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이 두 공간을 모두 생활지역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활동가 모집 시 이들을 모두 주민으로 포괄하고, 참여를 제안하거나 낮시간을 활용한 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Ⅲ.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실태

1. 운영현황과 실태
2. 한계와 문제점
3. 개미이웃을 활용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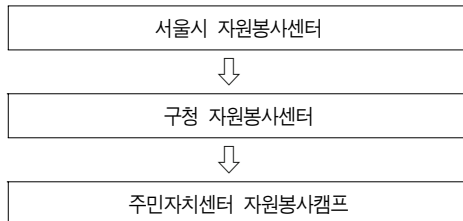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실태

1. 운영현황과 실태

1) 운영현황

개미이웃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하고 운영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구에 1개소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법정동의 자율의지에 따라 캠프를 운영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 주도형 복지사업으로 캠프장 이하 운영주체 구성과 운영이 모두 주민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각 지역의 주민구성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원봉사캠프는 지역주민이 캠프장이 되어 주민 스스로 수급대상자를 발굴

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원 사업을 실행하며, 마을단위의 활동을 통해 보다 세심한 복지를 지향한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위한 기획이 목적이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사 역시 종로구 관내 17개 동(2012년 8월 혜화동과 명륜2동 통합)으로 한정한다. 17개 동의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중 청운효자동의 지역 특성에 따른 캠프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캠프는 보통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며, 캠프운영주민이 하루 4시간씩 교대로 상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수급자, 수급희망자, 봉사활동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사업 실행 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 종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고 상주인구가 적은 편이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2, 3년간 중지되었다가 최근 2개월 전부터 재개되었다. 마포구 등 다른 지역이 수년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종로구의 자원봉사캠프는 아직 초보단계이다.

종로구청 자원봉사센터 담당관은 종로구가 도심인 만큼 복지시설이 미비하고 그에 반해 문화재와 각종 문화시설은 많은 편이라, 문화재 정비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자원봉사센터와 캠프의 목적이 복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남동 자원봉사캠프 역시 돈화문 복원 등 문화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실행해나가는 모든 것을 주민참여와 자원봉사라 여기고, 지역의 문제와 바람을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표 3-1〉 종로구 자원봉사캠프 현황

동명	운영상황			사업의 내용			수급대상자		봉사활동자	
	모름/계획 없음	준비중	설치	운영 중	시·구 사업	자체 기획	기존수급자	잠재적 수급자 발굴	주민 (개인)	단체 회원 (주민외)
신정동	○						○			
부암동	○						○			
평창동		○				○	○			
종로1,2,3,4기동	○				○		○			
종로5,6기동			○		○		○		○	○
해학동		○					○			
송인1동				○	○		○		○	○
송인2동	○						○			
창신1동		○				○	○		○	○
창신2동		○					○			
창신3동	○						○			
교민동				○	○		○	○	○	○
기회동	○					○	○			
이화동		○				○	○			
평문호자동		○					○			
시각동		○				○	○		○	
마안동		○					○			

대부분의 자치동은 자원봉사캠프 설치를 위해 구청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가하는 등 준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행복한 방’ 등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캠프운영을 시작하거나, 독립적으로 진행하던 지역 내 복지사업을 자원봉사캠프에서 하도록 하고 기존 직능단체 회원들을 봉사활동자로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캠프 운영 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나 인구가 적어서 캠프를 따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의 자치적 복지사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될 주민이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주민 주도형 복지사업이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성이 이뤄져야만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담당자의 판단 아래 캠프의 설치가 결정되고 주민에게 정보가 전달된다. 이는 주민주도형 사업이지만 주관기관이 존재하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처리 절차를 수행해야하는 것도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는 점이다.

2) 운영실태

종로구 17개 동 중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지역 모임을 통한 활동과 지자체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교남동과 창신1동의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캠프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남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기 10년 전부터 마을 토박이청년들을 중심으로 ‘마중물’이란 모임을 꾸려왔다. ‘마중물’ 회원이자 교남동 자원봉사캠프장인 김정민씨는 슬하의 두 아이를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주도하는 여러 기획의 중심은 아이들이다. 그는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는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골목 곳곳에 들마루를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들마루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하교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되어 하교시간이 언제인지 어떤 길을 지나는지 지켜보게 된다. 모르는 아저씨가 손을 잡고 아이를 데려가도 모르는 현대사회에서 어른들의 관심이 안전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되고 주민 간에 서로를 인식하는 ‘골목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들마루는 언덕배기 골목이 많은 이곳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마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목공, 미술가들의 봉사활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참여의 영역과 결과물이 다양해진 것이다.

한 ‘교회협의회’와 ‘(사)건교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 연대’ 등 지역안팎의 단체들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캠프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주변 단체와의 연계는 자원봉사활동과 모집을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자원봉사캠프의 운영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창신1동은 아직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이웃돕기 행사 등을 캠프사업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즉 관내에서 가꾸는 텃밭에서 수확한 무, 배추에 평화시장 상인들이 기증한 의류 바자회 수익으로 기타재료를 구매해서 치르는 김장담그기 행사와 쪽방거주민을 지원하는 ‘쪽방 상담센터’ 등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주도의 복지사업을 캠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쌀독에 쌀을 담아놓기도 하고, 긴급상황을 대비해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활동이 캠프운영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2. 한계와 문제점

1) 한계

(1) 특정 주민 주도형 사업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전체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지 않으면 관심 있는 몇몇 주민의 책임하에 운영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 내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여러 단체에 복수 참여하는 것과 같이 소수 지역민이 여타 활동과 더불어 캠프 운영에 참여할 경우 다른 단체 활동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또한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은 각자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세부적인 협동관계를 유지해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단체에 중복참여 활동 시 행사 참여 등으로 인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소속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위해 캠프 사업을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역시 캠프 운영에 중요한 만큼 기존의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면,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 행사와 떨어진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따라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이 아닌, 주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자치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행사에서 떨어져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의 활동가를 모집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2) 국가 지원사업을 주민이 대행하는 형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 준비 중인 종로구 내 자치동은 구청의 지원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자원봉사 활동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운영초기 단계라 따로 기획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지원품이 제공되었기 때

문에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캠프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시·구의 지원사업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에 목적을 두면 캠프 사업으로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의 목적이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치적 복지지원이나에 따라 저마다의 평가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의 수행을 자원봉사 캠프의 역할로 삼는다면, 기존 복지정책과 차별화가 될 수 없다. 지역 공동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다. 지원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제안하는 노력이 이뤄지기 어렵고 지원금 책정과 사업 승인을 위한 복지지원기구로의 전략이 우려된다.

2) 문제점

(1) 주민주도형 사업의 어려움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 어졌으나 주민의 제안으로 이뤄진 사업이 아닌 만큼, 일선 행정관청인 주민자치센터 내 복지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주민이 캠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캠프장과 캠프 구성원은 전산에 수급 대상과 봉사활동자 자료를 정리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캠프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루 4시간 이상 교대근무도 필수사항이다. 종로구 자원봉사 캠프장은 대부분 직능단체 회원으로 40대 이상이고, 모두 생업에 종사한다. 봉사활동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것인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참여하기 어렵다.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지역 곳곳의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도 많고, 방문할 곳도 많아진다. 상근을 해야 한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거나, 인력보장을 하여 상근활동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며, 복지담당 공무원

과의 업무 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 자료의 전산화 등의 과정을 캠프장 또는 구성원 1~2인이 소화하고 있다. 캠프운영인원의 확충이 없다면 지속적인 캠프 운영이 곤란하다.

또한, 복지담당 공무원 역시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내에서 주민이 캠프를 구성하는데 조언을 얻거나 함께 행정절차를 진행해줄 담당공무원의 역할도 문제다. 시행 초기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줄 만한 전문가가 각 캠프에 상근하며, 주민이 자치운영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해당 공무원 역시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주민에게 준비 없는 정책 시행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센터 내 업무를 맡아볼 컴퓨터 지급도 연기되거나 진행되지 않으며, 캠프 공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자치센터 내에 책상을 두어 공무원들과 함께 주민이 근무를 하게 하거나,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지원과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지적할 사항이다.

자원봉사캠프가 당초 수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행정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이해가 우선이다. 담당직원도 이해하지 못한 사업을 주민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라 할지라도 담당공무원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주민 주도형 기구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캠프장을 설치하고, 운영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해 교육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2) 캠프장 단독책임운영

대부분의 지역 내 직능단체장 또는 회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다. 현재 자원봉사캠프는 이들의 인맥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에 의지하여 수급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사업의 내용이 결정된다.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가 캠프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원봉사캠프가 소단위 지역에서 운영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캠프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맡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역시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업을 방치한 채 캠프 사무실에 상근하며, 마을일에 집중할 수만은 없다. 또한 주민자치활동의 가장 큰 단점인 중복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여러 단체회원으로 중복활동하고 있다. 부녀회원이 바르게살기 회원이며, 적십자회원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마을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논의할 때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힘들고, 동원되는 인력도 통계치보다 낮다. 자원봉사 캠프장도 여러 단체와 연관성이 있어야 지역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 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독창적인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더불어 캠프장의 역할이 지나치게 클 경우 개인적인 사정상 캠프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캠프와 주민들과의 관계 역시 무너질 것이라 예상된다. 주민 간의 대화창구가 캠프장 개인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남모르는 상처로 꼽을 수 있다.

(3)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의 부재

지역민 간의 소통, 교유가 자원봉사캠프의 가장 큰 역할이며 목표라고 했을 때 캠프 운영 역시 여러 명의 운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역할의 크기를 분산하여 소통과 화합, 책임과 반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잠재적 수급자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거름망 역할을 할 책임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획, 지역 내 상가에 대한 참여 제안 및 관리, 지원품 관리 등의 역할을 세분화해야만 캠프 운영자 간의 책임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캠프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많아져서 특정 주민의 단체 활동이 아닌 지역봉사를 위한 공공의 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업무가 세분화될 경우 업무의 절차와 내용의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의지하지 않고, 일의 내용이 중시되어 캠프 일의 인수인계가 가능해져 캠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분화된 책임업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마을만들기의 시범사업으로 전략할 우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사업으로 주민자치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구분된다. 지역 내 활동가들이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 동시에 마을만들기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칫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마을만들기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또 다른 주민자치 사업이 제기되었을 때 자원봉사캠프 역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동일시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적인 운영기구가 존재하고, 그 맥락은 유사하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꾸려지는 마을만들기와 달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소극적인 자원봉사참여자 모집

자원봉사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 외 참여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내 조직된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교남동이나 창신1동은 시민단체나 회사 내 봉사활동 동아리 등의 젊은 봉사활동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봉사활동자의 연령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모집활동이 요구된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방문하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냈으니, 신청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은 매일 쉽게 접하는 포털사이트가 아니고는 효과가 크지 않다. 대상이 주민인 만큼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도 필요하지만, 가가호호 직접 흥

보하거나 지역 곳곳에 현수막 설치 등이 더욱 효과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활동가 모집은 비용이 절감되고, 범지역적 홍보가 가능하지만, 현장홍보활동이 가져오는 즉각적 반응에는 미치지 어려울 때도 있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개미이웃을 활용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1) 철저한 역할분담

개미이웃의 활동취지는 다수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소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캠프 운영자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중과적 임무를 책임지게 했을 때, 수반되는 부담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민 간의 소통, 교류를 자원봉사캠프의 가장 큰 역할이며 목표로 규정했을 때 캠프 운영 역시 여러 명의 캠프운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역할의 크기를 분산하여 소통과 화합, 책임과 반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잠재적 수급자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링을 맡아줄 책임자, 프로그램 기획, 지역 내 상가에 참여 제안 및 관리, 기증·지원 물품 관리 등의 역할을 세분화해야만 캠프 운영자 간의 책임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캠프 운영에 참여하려는 주민이 많아져 특정 주민 간의 이해에 의한 단체 활동이 아닌 지역 봉사를 위한 공공의 활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업무가 세분화될 경우 업무의 절차와 내용의 무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의지하지 않고, 일의 내용이 중시되어 캠프 업무를 다른 이에게 인수인계해도 캠프운영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세분화된 책임업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원봉사자 모집

기존	기대
단기, 일회성 봉사활동	장기 활동을 통해 전문성 갖춘
목적성 봉사활동	자기만족과 봉사정신 회복
특정연령층	전 연령층의 고른 참여

(1) 전문활동가 만들기

① 봉사활동의 일상성과 의미 되새기기

봉사활동의 의미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봉사활동과 특정지역 및 계층을 위한 행사형식의 봉사활동, 그리고 학점으로 귀결되는 사회적 참여로서의 봉사활동이 아직 우리 사회의 ‘봉사’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발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이지만 봉사료가 지급되고, 혜택 없이는 활동가를 모집하기 어려운 것도 현 봉사활동의 문제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한계는 봉사활동을 특별한 행사나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렇듯 봉사활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봉사활동을 특별활동과 구분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해 특정의 일률적인 활동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봉사활동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기획하고, 일상생활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학점과 수당지급 등으로 인해 퇴색된 원인을 찾아 봉사활동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없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동의 당위성을 갖기 어렵다. 목적과 이익을 바라지 않는 마

음으로부터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다른 가치를 위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로 이뤄지는 봉사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자원봉사자 이해하기

자원봉사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웃돕기활동이다. 그러나 식대, 봉사비라는 명목으로 행사에 참여한 후 금품을 지급받거나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종로지회 사무장 강복순씨는 봉사점수, 리포트, 학점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성이 부족하고, 일회적 방문이 대부분이라서 단체 내에서도 정말 필요한 활동에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봉사활동자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아이의 봉사활동 점수 때문에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님도 있다. 대학입시에 봉사활동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김장 담그기, 노인정 방문하기 등의 활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당초 봉사정신과, 사회성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던 봉사활동 점수가 입시수단이 된 셈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봉사’의 정신이 깃들 리 없다. 따라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 활동을 봉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봉사활동을 하려는 사람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형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참여희망자가 좋아하며,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속옷을 빼는 일이라든지, 음식 만드는 일에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봉사활동의 내용이 다양한 만큼 봉사활동자의 희망도 다양할 것이다. 먼저 그들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활동의

내용을 모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활동 내용을 세분화하여 봉사활동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환경이나 방식이 전혀 다른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서로 보람과 기쁨을 찾기 위함을 목표로 하여 서로의 태도를 비난하거나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에게 가능한 내용과 방식을 찾아야 한다.

③ 장기적 봉사활동 참여

봉사활동 중 가장 보편적인 활동은 음식 만들기, 배달하기 등 특별한 교육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길 안내하기, 도배하기 등의 교육 후 참여 가능한 활동도 존재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교육의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활동가의 참여로 사전교육과 적응기간에 따른 시간소요, 교육인원 배치 등 실제 활동보다 준비과정에 할애되는 시간적 인적자원의 소모가 커서 아예 외부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힘들더라도 내부에서 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전교육이란 불편한 부분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과의 인간적 교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중장기적 참여를 통해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자가 절실하다.

독거노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거동 불편, 외로움 등 복합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러나 고통이 큰 만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강하다.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참여를 위해서는 그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불편한 점을 돕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장기적 봉사활동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봉사활동은 상호 교유를 통한 자기만족을 대가로 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전문봉사활동가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참여했을 때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다. 장애우 어머니들이 복지 전문가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도 요인이지만, 아이의 평생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겠다는 신념에서부터 시작된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익혀서 몸으로 터득한 전문가가 된 것이다. 이는 단지 일에 능숙한 인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뜻은 고맙지만 상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지원 또는 관심은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장기봉사활동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자의 인내심과 의지만 요구할 수 없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자원봉사캠프의 몫이다.

- ㉠ 좋아하는 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 ㉡ 활동의 내용을 직접참여, 간접참여, 물리적 지원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기
- ㉢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건 마련
- ㉣ 한 가지 일을 작게 나누어 작은 역할부터 책임지게 하기

(2) 봉사활동자 계층의 확대

종로구에서 조사한 자원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의 평균 2배 이상(여 평균 1,275명, 남 평균 1,529명)이다.

연령층	여자		남자	
	명수	비율	명수	비율
19세 이하	1,922명	17.6%	2,479명	19.6%
20~29세	3,259명	29.9%	3,454명	27.4%
30~39세	910명	8.3%	1,102명	8.7%
40~49세	1,996명	18.3%	1,546명	12.2%
50~59세	1,021명	9.4%	1,458명	11.5%
60~64세	1,203명	11%	1,794명	14.2%
65세 이상	598명	5.5%	795명	6.3%
합계	10,909명	100%	12,628명	99.9%
총계	23,537명			

10대와 20대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업, 취업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활발한 사회활동 연령층인 30대의 봉사활동 참여가 현저히 낮은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봉사활동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꼼꼼히 생각하게 하는 문제이다. 공공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로 환원된다는 인식의 미흡함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이 개인을 경쟁과 개발에 치중하게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 어떤 일의 보충역할이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공을 위한 가치창출에 목적을 두고 그러한 인식이 확산·확대되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면, 특정계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화된 생활형태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활동 내용에 맞게 연령층을 선정하고, 다채로운 연령층이 각자 걸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쿠폰제 봉사활동

할인 기간에 마트나 백화점에서 보내오는 쿠폰책자처럼 자원봉사활동을 세 부적으로 나눈 봉사활동안내서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가가 활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수첩을 발행하여, 수첩에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개인의 활동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쿠폰제 봉사활동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가가 행사운영에 참여할 경우 하루라는 전체시간을 할애해야한다는 시간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둘째,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서로에 대해 신뢰하며,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활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갈등과 역할분담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초보 활동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익숙해지게 된다.

다섯째, 자인의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된다.

(예)		
〈어르신 추석음식 대접하기〉		
다음 활동 내용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음식 만들기	재료구매	
	재료다듬기	
	조리	
대접하기	그릇에 음식 담기	
	상차리기	
	음식 드시는 것 도와드리기	
정리	그릇 나르기	
	잔반 정리	
	설겅이	
	남은 재료 정리하기	

3)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획

현재 자원봉사캠프 사업의 대부분은 시·구에서 지원되는 복지사업에 자원 봉사자를 동원한 것이다. 자원봉사캠프의 목적은 정책사업의 수행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문제를 표면화하는 것이다.

<II. 종로구 인구와 주민구성 중 2. 종로구 내 지역별 노인인구 분석 <홀몸 노인 인구> 분석표-별첨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의 생활환경과 현안문제에 차이가 있다.

물론 다수의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가장 큰 목표이지만, 주민의 다수를 어느 계층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며, 지역 특성에 대한 운영방식에도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별 가구 구성과 주택구조, 상업시설의 종류와 분포도, 지역 내 전래되는 풍속과 지형을 활용한 기획을 통해 지역문화가 반영된 특색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 특색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을 만들기,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다. 국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

업에는 반드시 지원금과 지원정책이 수반되는데, 이를 위해 지역의 가치와 필요에 상관없이 사업권 획득에만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개미이웃은 작은 힘을 모아 보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마을 사업이 성과에 치중하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주민의 목소리로 위장하는 일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원금이 목적이 아닌 주민의 생활과 내 가족의 안녕이 목표인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규모와 내용으로 활동을 채워나가야 한다.

4) 잠재적 지원대상자 발굴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대상자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 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급자 외의 잠재적 수급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역민과의 관계가 깊은 자원봉사캠프장이 사각지대 방문 시 이웃의 비대상자를 자연스럽게 방문하여, 잠재적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동사무소 직원이나 지역민과 관계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의 방문은 불편하다. 동사무소라고 밝히고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주민들은 거부감을 갖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사각지대나 수급자 방문 시 통·반장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원활한 주민을 대동해서 지역주민에게 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더 많은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잠재적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지면 안내서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지원대상자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 층 역시 지역 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찾기보다는 복지재

단이나 단체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자원봉사자 발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것은 젊은 참여자이거나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에야 가능해진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이므로 주민이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내용과 지원프로그램을 마을 신문이나, 정기 발행지 등에 소개하고 지면 안내서를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관에 비치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해 캠프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수혜자에게 구두로 복지지원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복지지원안내서를 가져다 주면 개개인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6) 스스로 돌아보기

수급자 또는 정책을 잘 알고 있는 특정 대상자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봉사활동자 모집과 잠재적 수급대상자 발굴의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복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 내부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혜자와 봉사활동자를 대상으로 캠프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지역주민의 인지도 조사, 다른 지역의 캠프 운영과 비교, 의견 교환, 여타 복지단체와 교류를 통한 의견나눔 등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7) 직능단체 활동과 구분하기

지역사회에서 직능단체 간의 관계와 역할은 매우 복잡하다. 서로 회원을 공유하면서 사업추진 시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목표와 운영방침과 상관없이 이해관계에 의해 다른 단체와 뜻을 같이 하기도 한다. 지역단체들의

이러한 관계는 주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보다 회원들 간의 친목과 이익을 위한 단체협동으로 귀결된다. 이로 인해 지역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회원이 아닌 주민에게 반발심 또는 경계심을 갖게도 한다. 범주민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개미이웃과 자원봉사캠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캠프가 다음과 같이 직능단체활동으로부터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첫째, 봉사활동 시 협력과 공유는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원봉사 캠프의 활동내용을 해당 단체의 활동으로 포괄해서는 안 된다.

둘째, 특정 기획에 대해 캠프가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협력 내용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또는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방법과 구성에 차별성을 둔다.

8) 운영을 위한 준비

- ① 해당 지구 내 상점의 종류와 개수 파악
- ② 상점의 특성 파악, 지역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 ③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변 주민의 생활상 조사
 - 지원대상자 발굴
- ④ 주민자치 센터, 회관 내 자원봉사캠프의 독립적 공간 확보
 - 기부물품 보관, 품앗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
- ⑤ 온·오프라인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소개와 봉사활동자 모집 홍보
 - 비치형 책자와 포스터 등의 홍보물들 제작해서 주민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 ⑥ 구청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기

9) 방문 백서

방문하고자 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비좁고 곰팡이가 슬고 비가 새며, 높은 지대나 외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가난에 대한 창피함을 지녔고, 그에 따라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하였다. 도움을 주기 위해 상대의 환경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심어주는 조사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실제 방문을 통한 조사는 최대한 자제하였다. 그러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찾아내는 것은 보다 다각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방문 조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나열한다.

- ① 도움을 주러 방문했다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방문 시 10분 이상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얘기하지 못한 지병이나 질환이 있는지 살핀다.
- ③ 구청,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안내서로 만들어서 전달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④ 식성, 직업, 취미(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의)에 대해 질문하고 자료로 정리하여 취업, 봉사 활동 참여 등을 제안한다.
- ⑤ “불편한 것 없으시죠?”라고 묻지 않는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돼 있으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다.
- ⑥ 생활환경, 먹거리, 가족 구성 등을 순차적으로 파악하기
 - ㉠ 주거환경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 ㉡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기
 - ㉢ 음식 조리가 가능한지, 조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알아보기

-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의 연령이 낮고, 한부모 가정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도 조리활동이 곤란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보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도시락과 밑반찬 등을 지원한다.

㉔ 좋아하는 음식 알아보기

-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종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고, 주변 식당이나 단체에서 음식 대접 시 차림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㉕ 가족관계, 방문객 여부

- 가족 간의 관계유지를 하고 있는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지, 가족과 왕래하지 않는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대화상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정기 방문자가 1차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⑦ 방문 시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 또는 통·반장과 함께 방문하여, 방문 가구 주변 비수급자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지원대상을 발굴한다.

IV. 청운효자동의 개미이웃 운영방안

1. 운영을 위한 준비
2. 청운효자동 취약계층 현황
3. 지역 내 상가의 종류와 수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획

IV

청운효자동의 재미이웃 운영방안

1. 운영을 위한 준비

- ① 수급자의 유형과 지원내용 정리, 분류
- ② 해당 지구 내 상점의 종류와 개수 파악
- ③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내용 기획
- ④ 사무업무와 물품 보관 등이 가능한 운영공간 마련하기
- ⑤ 온라인과 지면으로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역신문 등에 게재
- ⑥ 지원내용과 대상,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안내서 제작하기

2. 청운효자동 취약계층 현황

〈표 4-1〉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명수	세대수
노인세대	72	
독거노인	62	
장애인	32	
한부모가정	21	

〈표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명수	세대수
조손가정	1	
소년소녀가정	1	
총계	189명	가구

〈표 4-2〉 기초생활비수급자

분류	명수	세대수
의료특례	12	12
차상위 장애인	10	10
기타 저소득	23	23
한부모가정	59	21
기타 미분류	79	61
총계	183명	122가구

3. 지역 내 상가의 종류와 수

먹거리상점이 집중된 시장은 별도로 상가 종류와 수를 분류하는 것보다 시장 상인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시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직동, 필운동, 체부동은 사직동 주민자치센터 관할이지만 인근지역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로 편의점과 주점, 음식점, 카페가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이면 도로 안 상가지역은 생업과 관련되거나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생활지원을 목표로 한 봉사활동 참여에 유관성이 깊어 이면 도로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2012년 8년 집계).

〈표 4-3〉 식·음료 관련 점포 수

(단위: 개소)

동명	쌀	방앗간	통닭	식당	제과점	정육점	유제품배급소	카페	주점
옥인동	2	1	2	2	1	2	-	2	-
누상누하동	1	-	-	11	1	-	3	9	6
통인동	-	-	1	4	-	-	-	2	2
사직동	-	-	-	8	-	-	-	2	-
필운동	-	-	-	5	-	-	1	8	-
신교동	-	-	-	3	-	-	1	-	-
체부동	-	-	1	6	-	-	1	-	2
총계	3	1	2	39	2	2	6	23	10

〈표 4-4〉 주택수리, 설비 관련 점포 수

(단위: 개소)

동명	페인트	전기	집수리	설비	철물점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목공소
옥인동	-	-	1	-	-	-	-	-
누상누하동	1	3	4	1	2	1	1	1
통인동	2	1	-	1	1	1	-	-
사직동	-	-	-	-	-	-	-	-
필운동	-	-	-	-	-	-	-	-
신교동	-	1	1	-	-	-	-	-
체부동	-	-	2	1	-	-	-	-
총계	3	5	8	3	3	2	1	1

〈표 4-5〉 생활 관련 점포 수

(단위: 개소)

동명	웃가게	문방구	화장품	마트	약국	화원	시계	침구
옥인동	-	2	1	2	1	1	-	-
누상누하동	3	-	1	6	1	-	1	2
통인동	3	-	1	3	2	1	-	-
사직동	-	-	-	1	-	-	-	-
필운동	-	3	-	2	-	-	-	-
신교동	-	-	-	-	-	-	-	-
체부동	1	-	-	-	-	-	-	-
총계	7	5	3	14	4	2	1	2

〈표 4-6〉 서비스 관련 점포 수

(단위: 개소)

동명	미·이용실	세탁소	운동화 세탁	사진관	안마	구두 수선	옷 수선	자동차 정비	목욕탕	네일 아트
옥인동	1	-	-	-	-	-	-	-	-	-
누상 누하동	6	5	1	-	-	1	2	2	1	1
통인동	-	-	-	-	-	-	1	-	1	-
사직동	-	-	-	-	-	-	-	-	-	-
필운동	-	-	-	1	1	-	-	-	-	-
신교동	1	1	-	-	-	-	-	-	-	-
체부동	3	1	-	-	-	-	-	-	-	1
총계	11	7	1	1	1	1	3	2	2	2

〈표 4-7〉 기타 점포 수

(단위: 개소)

동명	공방	잡화	액세서리	재활용센터	인쇄	문화사업
옥인동	1	-	-	-	-	-
누상누하동	5	7	-	-	-	-
통인동	-	2	1	1	-	-
사직동	-	1	-	-	-	-
필운동	1	-	-	-	1	1
신교동	-	-	-	-	-	-
체부동	1	5	-	-	-	1
총계	8	15	1	1	1	2

위 조사의 목적은 지역 안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가게들이 참여 가능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들 상점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경우 지역차원에서 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착한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또한 상점 운영자들의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재능기부에 대한 신청도 접수하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획

내용	효과
상설시장 개최	봉사활동자 모집·홍보, 운영비용 마련
주택 보수를 위한 전문진단	절기별 집고치기 활동을 위한 자료 확보 체계적인 지원 가능
공방체험과 기부	지원물품의 다양화, 즐거운 봉사활동과 기부문화 형성
한 뺨 농장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 도시농경의 새로운 개념
어르들께 할 일 찾아드리기	이웃으로의 관계형성, 어른이 공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요리교실과 반찬 만들기	이웃 간의 정 되살리기

1) 상설시장 개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자하문터널에서 경복궁역으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대로변이면서 청와대 사랑채의 입구이기도 해서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드나듦도 많은 곳이다. 이곳에 상설시장을 개최하여 생활용품의 물물교환, 판매를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기증된 물품을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활용한다. 더불어 방문한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캠프의 역할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주택보수를 위한 전문진단

지역 내 여러 건축사사무실이 존재하고 거주민 중에도 건축을 전공하거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자원봉사참여를 통해 보수, 수리의 필요성이 많은 소외계층의 가옥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고, 수리비용, 수리방식 등을 조사한다.

이 자료를 참고로 주택수리 예산을 신청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집 고쳐주기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참여 가능한 상가와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체계적인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행한다.

3) 공방체험과 기부

청운효자동 관내에는 디자인, 리본공예, 바느질, 비누,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업자들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취미생활을 즐기듯 공방에서 배우며 만든 결과물의 일부를 자원봉사캠프에 기증하고, 공방운영자들에게 지원 물품 제작을 의뢰하여 자원봉사캠프에 보관한다. 이때 기증하는 물품의 양과 수는 제작에 참여한 주민의 자율에 맡기되 공방체험을 통한 결과물 중 전체의 50%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공방체험비는 재료비에 한해 개인이 지급한다.

시간활용이 자유롭지 않고, 드러내고 활동하기를 원치 않는 자원봉사자가 취미생활을 즐기듯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즐겁고 재미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어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수혜지는 다양하고, 색다른 지원품 중에서 취향에 맞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물품 제작에 참여하게 하여 정서안정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4) 한 뼉 농장

종로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근 통학으로 인해 낮시간을 주거공간 바깥에서 보내는 인구는 전체 종로 인구(조사당해연도 인구대비, 종로구 통계 연보 12. 통근 통학 유형별 연구 별첨)의 39.7%에 달한다. 마을에 공동 텃밭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타 지역에서 보내는 주민들이 텃밭 운영에 참여하기 어렵다.

연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010년	9,717호	17,827호	11,067호	5,504호	9,621호	729호
	17.8%	32.7%	20.3%	10.1%	17.7%	1.3%
합계	54,465호		일반가구수		57,807호	

또한 종로구 주거환경은 대체로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에 편중되어 있다. 마당을 가꿀 수 있는 가구는 종로 전체 가구 중 17.8%로 대부분의 주민이 개인적인 농작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관내 모든 자투리땅을 경작지로 바꾸기도 어렵다. 공공의 장소를 관리하려면 열린 공간이라 하더라도 책임자가 존재해야 하며, 많은 양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작물을 키우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도시민들은 작은 화분에 김장배추를 한 포기씩 심거나, 관상용으로 심어서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토마토 등을 심기도 한다.

작은 화분 한 개 정도는 각자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제반사항이 필요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는 특히 30~40대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한 뺨의 공간에서 재배하고 결과물을 수확해서 기부하는 재미를 주목적으로 한다. 한 뺨 경작에 참여할 자원봉사는 먼저 경작할 농작물의 종류를 자원봉사캠프 해당 활동란에 기재하고 수확한 것을 자원봉사캠프에 보관한다. 모아진 농산품은 수혜대상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김장이나 반찬 재료로 활용한다.

시행초기 또는 봉사활동자의 선택에 따라 종자와 작은 화분을 나눠주며, 종자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과일, 채소 등 작은 화분에서도 성장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선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배포시기를 정한다. 자원봉사캠프 내에서도 화분에 농작물을 심어 활동을 홍보하고, 다른 농산품과 함께 수혜자에게 전달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지체 등의 이유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수혜자들에게도 직접 화분경작을 권유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작은 노력과 관심이 모여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고, 봉사활동참여에 소극적인 30대와 40대가 개인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5) 어른들께 할 일 찾아드리기

대부분의 올몸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들은 하릴없이 시간을 보낸다. 하루 중 일 화면상태도 고르지 않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방안에서 지낸다. 이들 노인은 노인정이 있다고 해도 용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방문하지 않는다고 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작은 소망이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연고가 없고 젊은 시절 재봉일을 했다는 유인섭할머니(36년생 종로구 누하동 거주)는 먼 거리이고 차비정도만 지원받지만 과천동물원까지 일주일에 3일은 출근해서 동물 먹이를 봉투에 담은 봉사활동을, 나머지 날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길 안내하는 일을 하신다. 집에서는 혼자이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걷기도 하며, 병원에서는 수시로 혈압 검사도 할 수 있으니, 집에서 연금 받으며 가만히 지내는 것보다 좋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6·25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는 발음도 정확하고 기억력도 좋으며, 신문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 어르신은 어린아이들에게 지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글쓰는 것도 봐 주실 수 있다. 바둑을 잘 두는 어르신께는 바둑 두는 법, 장기 두는 법을 배우며, 어른을 대하는 예의와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다.

젊고 힘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진정한 지역복지의 목표이다. 남에게 무언가를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 역시 불편한 일이다.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서 어두운 방안에서 나와 스스로 보람과 목적의식을 찾게 도움으로써 서로를 위한 복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6) 요리교실과 반찬 만들기

거동이 불편하고, 부엌이 드나들기 힘든 구조이거나 남자 혼자 지내는 가정은 반찬을 제공받기 원한다. 지역 내에서 반찬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수요자가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 “지원 못한다”는 얘기만 전하고 있다.

예산과 절차가 문제인 것이다. 통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 반찬제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주민들이 조금씩 반찬을 모아 전달하는 방법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옆집과 조금씩 나누어 먹던 이웃 간의 옛정을 되살리는 것이다.

또한 기부를 전제로 밑반찬 등의 요리강좌를 열어 그날 만든 음식을 기부한다. 동네에서 솜씨 좋은 분들이 요리솜씨를 자랑하고, 가정별로 특징적인 반찬을 소개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한 요리보다는 자주 해먹는 반찬 위주의 요리강좌가 좋다.

현재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요리교실 역시 찌개와 밑반찬 요리를 배우는 것이다. 전문강사와 함께 주민강사도 모집하여 다양한 요리교실을 상시적으로 열고, 강좌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반찬 기부가 이뤄지도록 한다.

V . 맺음말



V

맺음말

개미이웃과 자원봉사캠프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구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개미이웃 모두 행정규모가 작고, 자치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던 우리 전통의 두레나 품앗이 문화의 되살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에서의 삶이란 위낙에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고, 선한 얼굴의 이웃이 흉악범으로 돌변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무작정 대문을 열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주변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나 고민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과거에 잘못이 있고, 지금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특정 계층으로 분류하며 지속적 무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나 역시 그런 상황에 당면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행복해질 기회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사회에서 격리되었다는 좌절감에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갔던 이유는 내 이웃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이웃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

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의 문을 닫고 지내서인지 아직도 이웃에게 다가서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치열한 사회에서 미래의 상위목표만을 보고 달려가다 뒤쳐져 따라오는 동료에게 추월당할까 불안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조급하기만 한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 스스로가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이에 의한 피해, 희생이 아닌 배려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계획 중 수급대상자 직접 면담 대상자는 애초 5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낯선 이의 방문 자체가 불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자존심과 사생활이 침해당해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탁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것저것 묻고 살펴보는 것이 무척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과 영역이 한정되고,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어렵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방문을 요구하면 차라리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방문상담이 가능한 전문가 또는 담당자들이 상대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충분히 사정을 이해하여 기록하고, 정리하면, 잦은 방문 조사로 인한 상호 간의 불편함을 줄이고, 자료를 통해 지원방안을 수립하기가 쉬울 것이다.

정확한 조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방문 시 대상자와의 대화법과 대처법에 대한 고민이 무척 중요하다. 수혜자는 본인도 깨닫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니라 얘기하지 못하는 지병이나 고민들에 대해서는 조사자나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터놓지 못한다.

방문 조사 중 한 노인은 한 쪽 귀가 들리지 않고, 소고기를 제외한 육류의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수혜대상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

다. 이후 지역의 음식점에서 소고기류 음식을 대접하는 대상에 그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이 그런 사실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것은 30분 이상의 대화 때문이었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을 묻고, 찾아내는 데 30분 이상의 대화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방문조사 또는 물품 전달 시 방문시간은 10분 안팎이다. 복지담당자의 업무 내용이 방문조사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질환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대답을 할 수 없어 수혜자와 공무원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이다. 복지지원이 행정적으로만 이뤄지면 안 되는 이유는 복지가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고민이 없으면 불만과 불평이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서 다가서고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족이 수혜자이면서 봉사활동자인 장애인 부모와의 인터뷰는 수혜자와 봉사활동자의 입장을 정확히 알기 위함이었다. 서로가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니고 있지만 그에 대한 고민과 대화가 없는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을 위한 활동이지만 사람의 마음보다는 행위에 목적을 둔 자원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운영방식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부모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에 답답함을 느껴 직접 뛰어들어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해지고 있었다. 주변의 도움을 주는 친구로서의 자원봉사자를 원하지만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도, 이웃 간의 소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접하고,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입장으로 봉사활동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이웃 또는 친구여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이해와 교류를 통해서만 진정한 서로돕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살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특정단체나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큰 틀에서 개미이웃과 자원

봉사센터 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지만,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나친 관심과 경쟁구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도 주민과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무조건적인 봉사와 참여를 요구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목적이 있는 지역 내 활동 또한 모처럼 만들어진 소통의 창구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나와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개미이웃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다.

부 록



1. 인구추이

단위: 명

연별	세대	한국인 인구			외국인 인구			인구밀도(명/㎡)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고령자 ²⁾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면적(㎡)			
1994	73,796	214,930	107,877	107,053	1,743	935	808	9,955	24.00	2.91	12.785
1995	72,498	207,733	102,852	101,881	1,647	882	755	8,993	23.91	2.82	12.859
1996	72,027	199,476	100,076	99,400	1,912	1,008	904	9,339	23.92	2.77	12.919
1997	72,919	196,611	98,650	97,961	1,915	1,004	911	9,220	23.92	2.67	13.285
1998	69,606	190,619	95,645	94,974	1,887	909	888	7,972	23.91	2.71	13.464
1999	69,581	188,865	94,763	94,102	2,275	1,224	1,051	7,999	23.91	2.68	13.988
2000	69,935	188,946	94,823	94,123	2,568	1,374	1,194	7,902	23.91	2.67	14.489
2001	70,095	187,036	94,120	92,918	2,813	1,463	1,350	7,823	23.91	2.63	15.067
2002	70,113	184,224	92,661	91,543	2,993	1,530	1,463	7,705	23.91	2.58	15.359
2003	70,288	181,441	90,978	90,463	3,022	1,744	2,178	7,588	23.91	2.53	15.981
2004	70,406	174,372	87,731	86,641	4,202	1,843	2,359	7,469	23.91	2.54	16.728
2005	69,962	173,861	87,091	86,770	4,646	2,110	2,436	7,272	23.91	2.48	17.217
2006	70,925	166,793	83,634	83,159	5,697	2,741	3,156	7,223	23.91	2.43	17.938
2007	71,968	165,946	83,104	82,742	7,997	3,897	4,100	7,271	23.91	2.42	19.127
2008	74,660	170,706	85,938	85,307	9,040	4,327	4,722	7,519	23.91	2.29	20.162
2009	74,315	177,543	88,432	89,111	168,600	84,257	84,346	7,425	23.91	2.27	20.753
2010	77,821	170,578	85,182	85,396	8,784	4,070	4,714	7,501	23.91	2.27	22.458

자료: 기획예산처
 주: 1) 외국인 세대 제외(1994년부터 적용)
 2) 65세이상 고령자 외국인 포함



2. 동별 세대 및 인구 (주민등록)



단위: 명

연월 및 동별	세대*	총 계				한국인	
		인구		인구			
		남	여	남	여		
2005	69,962	173,961	87,001	86,770	169,315	84,981	84,334
2006	70,925	172,500	86,375	86,315	166,790	83,634	83,156
2007	71,909	173,843	87,001	86,842	165,848	83,104	82,742
2008	74,692	179,754	89,725	90,029	170,705	85,398	85,307
2009	74,315	177,543	90,432	89,111	168,603	84,257	84,346
2010	77,621	179,362	89,252	90,110	170,578	85,182	85,396
정문로 자용	6,290	15,992	7,725	8,167	15,688	7,645	8,043
사 직 동	4,690	10,909	5,073	5,695	10,203	4,706	5,407
삼 청 동	1,650	3,706	1,610	1,896	3,517	1,600	1,827
부 광 동	4,630	11,048	5,751	5,897	11,406	5,644	5,762
정 상 동	7,342	19,921	9,573	10,348	19,568	9,416	10,151
무 약 동	3,290	8,754	4,202	4,652	8,663	4,168	4,495
교 배 동	4,450	9,324	4,580	4,734	9,140	4,507	4,633
거 회 동	2,535	5,857	2,612	3,045	5,709	2,747	2,962
891-3-08동	5,790	9,155	5,295	3,990	6,010	4,627	3,983
8925-6-08동	3,147	6,640	3,519	3,121	6,302	3,383	2,919
이 학 동	4,662	9,991	4,819	5,172	9,368	4,618	4,640
세 회 동	5,705	12,990	6,270	6,726	12,112	5,867	6,245
명 연 3기 동	3,606	7,221	3,780	3,471	6,336	3,360	2,967
명 연 1동	3,700	8,964	4,417	4,247	7,113	3,726	3,981
명 연 2동	5,290	12,366	6,253	6,112	11,611	6,009	5,602
명 연 3동	3,230	8,780	4,385	4,405	8,700	4,350	4,350
명 연 4동	3,327	8,219	4,087	4,119	7,594	3,804	3,790
명 연 5동	4,990	9,934	4,981	4,973	9,350	4,888	4,462

자료: 7-농림부지
주: *1인구는 세대수 x 1.95



8. 인구동태(동별)



단위: 명

연별 및 동명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05	1 116	572	544	897	523	374	1 155	448
2006	1 118	572	546	797	460	337	1 043	449
2007	1 182	612	570	809	443	366	1 162	406
2008	1 176	628	548	824	472	352	1 060	479
2009	1 005	569	532	806	452	353	943	430
2010	1 107	566	541	851	511	340	1 011	396
총 은 호 자 동	110	56	54	75	47	28
사 조 동	75	38	37	61	36	25
삼 청 동	20	10	10	20	10	10
부 암 동	67	37	30	52	29	23
병 칭 동	109	50	59	89	41	48
무 의 동	78	43	35	36	20	16
교 남 동	68	37	31	55	32	23
가 획 동	31	18	13	35	16	19
종교1234동	47	23	24	67	43	24
종교5·6동	26	15	13	44	27	17
이 화 동	43	19	24	32	19	13
예 화 동	74	33	41	45	26	19
명륜3기동	36	16	20	30	28	2
창신1동	33	15	18	40	24	16
창신2동	77	33	44	53	32	21
창신3동	69	40	29	38	27	11
송민1동	73	44	29	29	21	8
송민2동	66	37	29	50	33	1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인
구



12.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¹⁾



(단위 : 명)

주기	12세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함	통근·통학						통근 통학지 미상	통근통학 여부 미상
			계	현재살고 있는 통	같은 자치구 내 다른 통	같은 시내 다른 자치구	다른 시	통근 통학지 미상		
2005	135,602	55,136	79,088	28,816	11,857	32,832	5,512	71	578	

자료 : 통계청

수 : 1) 일반가구 및 집단가구의 12세 이상 인구기준
단, 특별조사구, 외국인가구 제외

인구



13. 상주(야간), 주간인구



(단위 : 명)

주기	상주인구 ¹⁾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 자수
		계	통근 ²⁾	통학 ²⁾	계	통근 ²⁾	통학 ²⁾		
2005	152,073	268,044	229,819	38,225	38,344	30,709	7,635	381,773	25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수 : 1) 상주인구는 일반가구 및 집단가구의 인구

2) 통근통학인구는 일반가구 및 집단가구의 12세이상 인구
단, 특별조사구(군의 통), 외국인가구 제외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가구수, 명

사회복지장

연월 및 동별	총 수급자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별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구	사실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소계		개인단위보장특례		다법령예외한특별		시설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5	2,037	—	3,308	901	2,675	...	1,054	73	84
2006	2,144	—	3,303	2,006	2,950	...	976	56	62	
2007	2,188	—	3,965	2,142	2,990	...	971	26	34	
2008	2,161	—	3,874	2,199	2,925	...	922	22	27	
2009	2,240	893	3,060	2,121	2,862	...	156	37	42	
2010	2,258	13	3,960	2,233	2,998	26	37	21	32	5	5	13	925
청운호자동	131	—	207	131	207	—	—	—	—	—	—	—	—
사직동	83	—	94	83	94	—	—	—	—	—	—	—	—
삼청동	29	—	37	29	37	—	—	—	—	—	—	—	—
부암동	71	—	105	71	105	—	—	—	—	—	—	—	—
병창동	66	—	109	66	109	—	—	—	—	—	—	—	—
부악동	77	—	97	75	95	2	2	—	—	2	2	—	—
교남동	127	—	179	123	169	4	10	4	10	—	—	—	—
가회동	61	—	90	60	79	1	1	—	—	1	1	—	—
종로1·2·3·4동	431	—	445	422	436	9	9	8	5	1	1	—	—
종로5·6동	115	—	165	114	164	1	1	1	1	—	—	—	—
이화동	116	—	183	116	181	2	2	2	2	—	—	—	—
혜화동	76	—	101	75	100	1	1	1	1	—	—	—	—
명동3가동	35	—	44	34	43	1	1	—	—	1	1	—	—
창신1동	210	—	248	200	247	1	1	1	1	—	—	—	—
창신2동	206	—	330	207	328	1	2	1	2	—	—	—	—
전선3동	67	—	161	66	156	1	5	1	5	—	—	—	—
송인1동	114	—	166	114	166	—	—	—	—	—	—	—	—
송인2동	218	—	264	216	262	2	2	2	2	—	—	—	—
기타	—	13	925	—	—	—	—	—	—	—	—	13	925

자활사회복지과
주1)조건부수급자 포함임.



16. 홀몸(독거)노인 현황 (성별)



단위: 명

연월 및 동별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5
2006	3,854	1,402	2,452	963	344	619	160	49	111	2,731	1,009	1,722
2007	4,923	1,638	3,285	859	291	568	134	38	96	3,930	1,309	2,621
2008	10,182	3,540	6,642	1,475	561	914	310	88	212	8,397	2,981	5,416
2009	5,771	2,077	3,694	905	292	613	252	136	116	4,714	1,649	3,065
2010	6,009	2,096	3,913	888	351	537	182	56	126	4,939	1,689	3,250
청년호자동	447	111	336	62	9	53				385	102	283
사직동	367	111	256	51	14	37	68	17	41	298	80	178
삼척동	153	51	102	14	5	9	4	2	2	135	44	91
부림동	426	160	266	50	14	36	26	7	19	350	139	211
평창동	452	133	319	18	3	15	7	2	5	427	126	299
두익동	224	67	157	36	11	25	4	1	3	184	55	129
교남동	358	127	231	28	5	23	6	4	2	324	118	206
가회동	200	57	143	25	7	18	1	1		174	49	125
승로1·2·3·4가동	666	352	314	205	117	88	14	5	9	447	230	217
승로5·6가동	237	111	126	40	15	25				247	96	151
이피동	262	82	180	39	5	34	5	1	4	218	56	162
세희동	331	102	229	19	5	14	3	2	1	309	96	214
봉분3가동	197	41	156	12		12				185	41	144
창신1동	361	160	201	80	50	30	9	2	7	272	108	164
창신2동	350	109	241	63	21	42	7		7	280	88	192
창신3동	238	80	158	18	3	15	13	2	11	207	75	132
승인1동	227	69	158	42	14	28	8	5	3	177	50	127
승인2동	463	183	280	85	53	33	17	5	12	360	135	225

자료: 가정복지과

사회보장

(단위: 명)

장애유형																	
언어			지적			지배성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45	35	10	429	268	161	40	31	9	390	207	183	195	117	79	50	35	15
46	35	11	298	176	110	43	34	9	370	194	176	209	121	88	54	36	18
48	34	14	281	167	114	46	37	9	231	139	92	207	121	86	50	32	18
53	41	12	286	174	112	61	50	11	254	156	98	207	128	79	50	30	20
56	41	15	300	182	118	60	51	9	292	169	123	225	134	92	52	34	18
57	42	15	307	189	118	66	55	11	278	159	119	218	127	91	43	25	18

사회보장

(단위: 명)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723	440	283	1140	691	449	937	654	283	762	437	325	974	521	353	1051	751	300
621	377	244	1099	633	446	991	660	331	830	453	377	994	575	419	1186	804	382
604	369	235	1009	621	387	957	636	321	924	464	460	1123	636	487	1240	843	409
634	390	244	1007	616	391	1014	655	359	1039	513	525	1294	733	561	1357	911	446
710	420	290	1047	644	403	1117	709	408	1168	541	627	1460	765	695	1506	1012	494
678	406	270	988	601	387	1151	739	412	1213	572	641	1518	789	729	1549	1036	513



16-1. 홀몸(독거)노인 현황 (연령별)



(단위: 명)

지역별

연령대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노인			일반		
	계	65세-79세	80세이상	계	65세-79세	80세이상	계	65세-79세	80세이상	계	65세-79세	80세이상
2005
2006
2007	4,923	859	560	279	134	109	25	3,930
2008	5,377	4,342	1,035	840	677	163	194	153	41	4,343	3,512	831
2009	5,771	4,619	1,152	905	643	162	252	191	61	4,714	3,785	929
2010	6,009	4,655	1,354	888	697	191	182	131	51	4,939	3,827	1,112
청문요자동	447	336	111	62	46	16	-	-	-	385	290	95
사직동	367	267	60	51	40	11	59	42	16	258	205	53
삼성동	153	101	52	14	8	6	4	1	3	135	92	43
부암동	426	312	114	53	37	13	26	20	6	350	255	95
광창동	452	341	111	19	13	5	7	6	1	427	322	105
무악동	224	166	58	38	29	7	4	3	1	184	134	50
교남동	358	274	84	29	15	13	8	5	1	324	254	70
가회동	200	133	67	25	17	8	1	1	-	174	115	59
종로1·2·3·4동	666	536	130	205	170	35	14	12	2	447	354	93
종로5·6동	287	230	57	40	32	8	-	-	-	247	198	49
이학동	262	201	61	33	27	12	5	4	1	218	170	48
혜화동	331	234	97	19	17	2	3	2	1	309	215	94
명륜3기동	197	153	44	12	8	4	-	-	-	185	145	40
장신1동	361	297	64	60	68	12	9	7	2	272	222	50
장신2동	350	294	56	63	53	10	7	7	-	280	234	46
장신3동	238	169	69	18	11	7	13	5	8	207	153	54
승인1동	227	197	30	42	35	7	8	6	2	177	155	21
승인2동	463	394	69	68	71	15	17	10	7	380	313	67

자료: 가정복지과



17. 소년·소녀가장 현황

단위: 명

연월 및 종별	세대주				세대원			재학일				세대주의 주거형태				영구임 대 및 기타	
	합계	계	남	여	계	남	여	미 취학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기타 (미재 학등)	자가	전세	월세		전지
2005
2006	4	3	1		2	1	1		1	1				1			...
2007	3	2			1				1	1		1					2
2008	2	1		1	1			1	1	1						1	...
2009	5	2	1	1	3			3	1		2	1	1				2
2010	5	2	1	1	3	1	2	1	-	1	2	1	-	1	-	-	2
정 본 호 자 동	-	-	-	-	-	-	-	-	-	-	-	-	-	-	-	-	-
사 직 동	-	-	-	-	-	-	-	-	-	-	-	-	-	-	-	-	-
상 칭 동	-	-	-	-	-	-	-	-	-	-	-	-	-	-	-	-	-
부 양 동	2	1	1		1		1	1				1		1			1
편 상 동	-	-	-	-	-	-	-	-	-	-	-	-	-	-	-	-	-
무 약 동	-	-	-	-	-	-	-	-	-	-	-	-	-	-	-	-	-
교 남 동	-	-	-	-	-	-	-	-	-	-	-	-	-	-	-	-	-
가 외 동	1	-	-	-	-	-	-	-	-	-	-	-	-	-	-	-	-
종로1·2·3·4거동	-	-	-	-	1	1	-	-	-	-	1	-	-	-	-	-	-
종로5·6거동	-	-	-	-	-	-	-	-	-	-	-	-	-	-	-	-	-
이 차 동	-	-	-	-	-	-	-	-	-	-	-	-	-	-	-	-	-
배 학 동	-	-	-	-	-	-	-	-	-	-	-	-	-	-	-	-	-
영 문 3 거 동	1	-	-	-	-	-	-	-	-	-	-	-	-	-	-	-	-
장 신 1 동	-	-	-	-	-	-	-	-	-	-	-	-	-	-	-	-	-
장 신 2 동	1	1		1	1		1			1	1						1
장 신 3 동	-	-	-	-	-	-	-	-	-	-	-	-	-	-	-	-	-
송 언 1 동	-	-	-	-	-	-	-	-	-	-	-	-	-	-	-	-	-
송 언 2 동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

자료: 가정복지과



19. 장애인 등록현황



연세대학교

연 별	장 애 유 형														
	합 계			지 체			뇌 병 변			시 각			청 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05	5 487	3 494	1 993	2 525	1 631	895	565	362	203	670	441	229	475	294	181
2006	5 721	3 522	2 199	2 995	1 646	1 049	613	388	225	742	475	266	539	325	211
2007	5 862	3 569	2 293	2 991	1 704	1 187	664	420	244	758	487	271	555	332	224
2008	6 344	3 818	2 526	3 198	1 842	1 356	709	443	266	770	496	274	631	370	261
2009	7 008	4 091	2 917	3 546	1 941	1 605	838	536	300	716	400	316	790	502	288
2010	7 097	4 145	2 952	3 613	1 978	1 635	808	513	295	822	528	294	738	423	315

자료: 기증복지회

<계속>

연 별	장 애 유 형														
	호 흡 기			간			안 번			장 무, 요 루			간 질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05	30	28	5	20	15	5	1	—	1	30	22	8	17	8	9
2006	40	32	8	27	19	8	2	1	1	31	24	7	24	12	12
2007	39	32	7	29	19	9	1	—	1	37	29	8	25	15	9
2008	39	29	10	24	19	5	1	—	1	36	25	11	25	15	10
2009	44	34	10	30	24	6	2	—	2	33	24	9	23	17	6
2010	48	35	13	32	26	6	2	1	1	42	28	14	23	16	7

자료: 기증복지회



20. 저소득 한부모 가족



단위: 명

연 별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보훈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05	298	774	125	334	173	440	-	-
2006	149	384	89	227	60	167	-	-
2007	225	571	136	324	89	247	-	-
2008	389	721	248	320	141	401	-	-
2009	406	1,087	259	672	148	413	1	2
2010	408	1,049	294	738	113	309	1	2

자료: 가정복지국

사회복지장



서울연 2012-PR-46

개미이웃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2년 11월 6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비매품 ISBN 978-89-8052-936-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